

날짜 2022-11-27(D1)      본문    눅1:39-45  
번호 2337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14, '주 우리 하나님'

###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시작    주기도  
찬송    찬14, '주 우리 하나님'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눅1:39-45  
찬송    찬53, '성전을 떠나가기 전'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다음 주 성찬 다음 주는 12월 4일 월 첫 주, 성찬 있습니다.
- ② 매일예배 재개와 누가복음 속뜻 강해 지난 2월 4일 자로 잠정 중단되었던 매일예배를 그저께인 25일(금)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월-금은 오전 6시, 주말인 토요일은 오전 9시이며, 당분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가급적 누가복음 속뜻 강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서울새교회 이순철 목사님의 설교 원고로 대신하며, 중간중간 혹시 필요하면 설명을 보태되 원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천국과 지옥’과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 번역 원고 역시 번역이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 병행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예배는 매일 드려야 한다는 절박성과 다른 하나는 번역 설교의 너무 난해함 때문입니다.

헌금기도, 축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으로, 제목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저께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속뜻 강해로, 그저께 금요일 본문은 순번을 따라 성전 분향 중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말을 못 하게 된 제사장 사가랴를, 어제 토요일 본문은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를,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와 그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된 그 속뜻에 대해 들었고, 읽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등 등장인물들의 내적 의미와, 기록에 사용된 겉 글자들, 즉 단어와 문장 등 표현들이 가지는 내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면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표현이 주님의 너무나도 온전하신 의도 아래 선택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이 하나하나의 사건과 기록들 안에 주님의 창세 이래 대하처럼 흐르는 구원의 섭리가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격, 감동,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적 의미, 내적 진리로 읽는 천사들은 그래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 감동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오, 주님, 마리아에게 참 진리로 오신 주님, 제게도 오셔서 저로 참된 선과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